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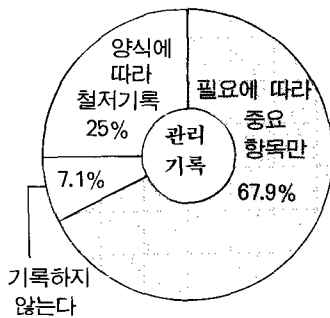
# 사료구매 전문화되어가고있다

**생** 산성 향상을 위해 각 채란농가의 사육규모 형태가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힘입어 시설자동화를 통해 전업화, 대규모화 추세로 급속히 변화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래식계사보다 시설자동화를 한 농가에서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진다 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설치한 자동화시설이 인력대체 효과 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라 채란농가(28농가)를 대상으로 산란지수를 분석코자 총 5개문항의 설문지를 작성 응답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설문조사를 한 바에 따르

면 각 농가의 경영분석을 위한 사양일지 작성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① 양식에 따라 철저히 기록 25% ② 필요에 따라 중요항목만 67.9% ③ 기록하지 않는다 71%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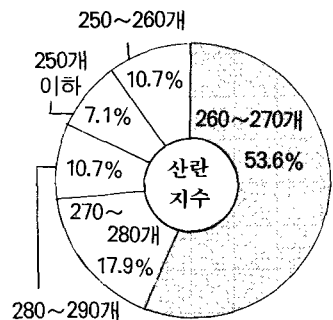
(그림1) 사양관리 기록여부

철저히든지 중요항목만하든지 사양기록은 93%가 하고 있으나 경영분석은 제대

## □ 이인수 기자

로 할 수 있는 철저한 기록은 25%에 머물러 있어 아직도 합리적인 농장경영 분석에는 거리감이 있어 관리상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다음은 폐계도태시까지 산란지수를 묻는 항목에서는 ① 250개 이하 7.1% ② 250~260개 10.7% ③ 260~270개 53.6% ④ 270~



(그림2) 폐계도태시까지 산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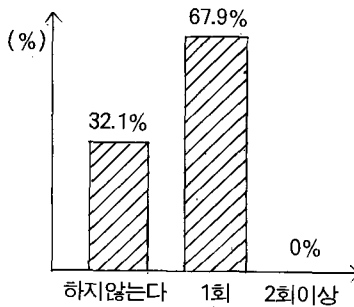


280개 17.9% ⑤ 280~290개 10.7% ⑥ 290이상 0% 나타나 각 채란농가의 약 53.6%가 산란지수 260~270개로 나타나 산란계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사양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는 본회에서 실시한 최근 산란계 경제능력검정성적결과를 보면 78주 기준으로 하여 산란지수 288개에 비해 265개의 평균치를 보임에 따라 산란지수면에서 20개정도가 낮은 수준에 있어 향후 철저한 사양관리를 통해 산란지수를 높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주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강제환우 실시회수를 묻는 항목에는 ① 1회 6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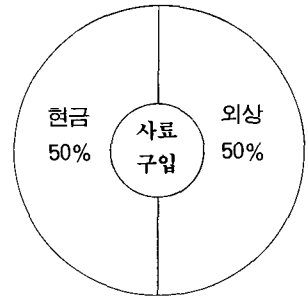
② 하지 않는다 32.1% ③ 2회이상 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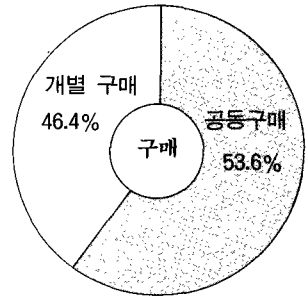
〈그림3〉 강제환우 실시여부

강제환우는 난가형성에 따라 경영수지를 최대한 높이기위해 실시하는데 이번 조사결과로는 1회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조사시점에 저난가에 대한 불안심리도 있었겠지만 채란계가 전부 갈색계로 바뀌어 환우의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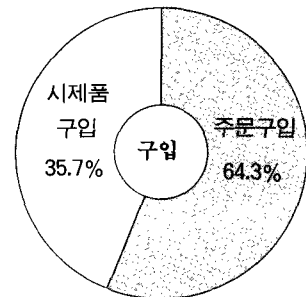
려움이 있고, 자동화시설로 부대여건상 환우가 어려워진 점도 크게 작용하여 앞으로는 환우를 실시하지 않는 농장경영 분석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료구입 형태〉



〈구매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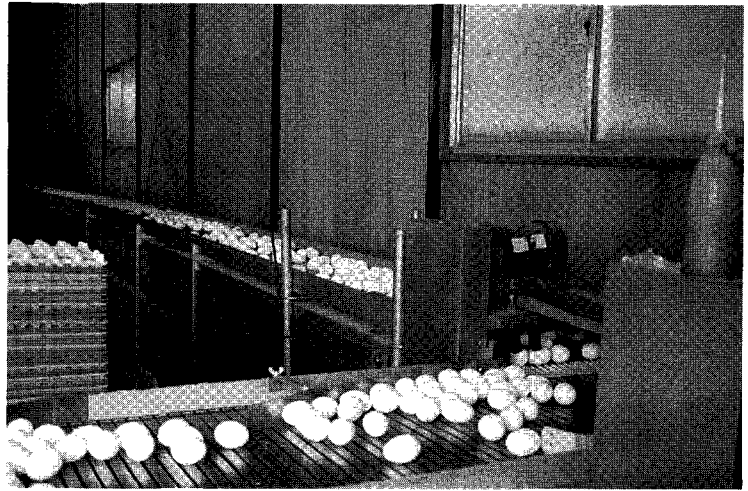
〈구입형태〉

〈그림4〉 사료구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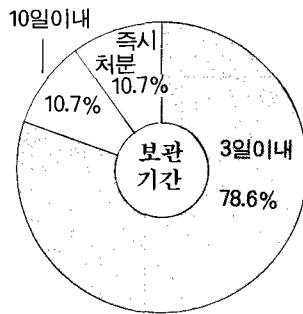
한편 사료구입 방법을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한 질문에 첫째 사료구입 형태는 ① 외상구입 50% ② 현금구입 50%, 둘째 구매형태는 ① 개별구매 46.4% ② 공동구매 53.6%, 셋째 구입형태는 ① 시세품구입 35.7% ② 주문구입 64.3%로 조사되었다.

이 항목에서 특이한 사항은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개별구매 보다는 공동구매, 시제품구입보다는 주문구입을 하고 있어 각 지역의 양계인들이 어떠한 형태로든간에 조직을 구심점으로 하여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해결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주문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64%에 이르러 전문화경향이 뚜렷해짐을 볼 수 있다.

농장에서의 평균적인 계란보관기간에 대한 물음에는 ① 즉시처분 10.7% ② 3일 이내 78.6% ③ 10일 이내 10.7% ④ 10일 이상 0%



로 나타나 대부분의 채란업자들이 계란보관 기간은 10일 이내에 처분하고 있다는 다소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그림5〉 계란보관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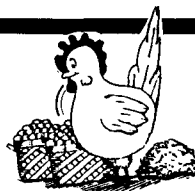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제화·개방

화 시대에 대비해 각 채란농가에서는 어쨌든 산란지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 각 채란농가의 문제점을 분석, 보완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아울러 시설자동화를 도입한 농가는 그 자동화된 시설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계조작능력을 배양하여 생산비를 절감시켜 나아가는 것이 앞으로 수입개방에 대비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양계

알먹고 키사랑



닭먹고 힘사랑